2015년
2월 6일 금요일

NO.386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중국 경심선 고속철도 감리 최우수기관 선정

- 외국 감리사 참여 6개 공구 감리 중 1위 -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7월 수주한 북경과 심양을 잇는 경심고속철도 요녕구간 (약 407km) 중 공단이 참여한 제3공구 연합체가 지난 1월 7일, 중국 발주처의 '14년 하반기 안전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감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발주처 주관으로 안전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평가는 경심선 착공후 첫 번째 평가이고 이 구간이 철도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세계 유수 6개 외국사들이 중국 감리사와 연합해 각 공구별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부는 중국에서 2005년 수녕~중경간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시험선 감리 자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심선 고속철도를 비롯해 총 13개 사업(총연장 약 3,900km)의 수주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파견하고 파견된 직원들이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며 "공단은 최근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만, 인도 등 제3국 철도시장에도 중국과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등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심선(북경-심양) 사업 현황

1. 경심선 요녕구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설 경심철로여객전용선 요녕구간 역전공사
- 공사위치 : 북경시 성화역(星火站)에서 출발하여 요녕성 조양시 등을 경유하여 심양역까지 연결
- 노선연장 : 총연장 698km 중 요녕성 구간 406.7km
- 공구분할 : 시공감리 6개 공구

구분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연장(km)	50.423	77.772	77.742	72.085	59.991	47.896	
참여국	독일	한국	핀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2. 경심선 요녕구간 3공구 감리 개요

- 연 합 체 : 북경철연건설감리유한책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감리기간 : 56개월(철도공단 33개월)
- 감리비용 : 100억원(철도공단 35억원)

3. 사업노선도

작년 국유재산 사용료 수익 575억원 달성

- 전년대비 63억(15%) 증가, 건설부채 상환에 크게 기여 -

시설사업본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 수익으로 2013년보다 63억원 증가한 575억원을 달성해 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2년 442억원, 2013년 512억원, 2014년 575억원 등 年평균 15%씩 늘었으며 공단은 임직원 모두 국유재산의 가치증대와 수익창출을 향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수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철도 유휴재산 지가 현실화'를 통한 19억원의 수입 증대, '지하매설물 사용면적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12억원의 추가수입 발생, 수익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해 '권역별 찾아가는 유휴재산 임대설명회', '지자체 및 물류 · 부동산 협회 등에 대한 타겟 마케팅' 등 적극적인 수요 발굴 마케팅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용료 미납금 채권회수를 위해 '미수채권 Zero팀 운영', '체납업무 책임자 실명제', '체납관리시스템 구축',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한 압류(해제) 전자등기 촉탁제 도입'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2013년보다 39% 증가한 59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활용가능 재산을 적극 발굴해 민간에게 재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단의 부채를 감소하는 한편, 48조원의 철도 국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건설사업 '원가는 내리go! 품질안전은 올리go!'

- 2014년 VE 및 설계심사로 4천695억원 사업비 절감 성과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작년 한 해 182건의 철도설계에 대한 VE 및 심사활동으로 4천695억원의 철도건설 사업비를 절감했다.

연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내 · 외부 전문가 426명과 180회 이상의 회의를 가져 총 6,470여건의 설계개선 제안사항을 발굴한 결과로 당초 목표치 대비 152%나 초과한 성과이다.

*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기법으로 설계 60%단계에서 시행

* 설계심사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성과물 및 발주 설계도서의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예방하는 절차로 설계 90%단계에서 시행

주요 개선내용은 ▲이용고객 동선을 고려한 신설역사 연결통로 길이 축소(8m) ▲철도통과 높이 하향(1m이상) 조정으로 토공공사비 절감 및 조망권 피해 최소화 ▲기존선과 신설선이 중복되는 일정구간 내 레일규격 통일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최적화 ▲우기를 감안한 하천공사 시기 조정으로 가설공사비 절감 ▲터널 공동구 덮개 제작을 위한 재료(철근→와이어메쉬)개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도 운행선 구간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등으로 사업비 절감 뿐 아니라, 품질 및 안전향상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시행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그간 철도건설공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6월 'VE 업무 가이드북'과 '설계심사 및 VE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원가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량 및 단가산출'을 글로벌 코드체계(KRQP CODE 2015)로 전면 재정비하고 품질향상을 기본으로 한 철도고유의 VE 가치향상도 평가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VE와 설계심사가 철도건설 원가절감 및 공단의 부채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영개선과 동시에 철도건설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14년 전국 VE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화성)에서 충남도(홍성)까지 연결, 서해안 철도시대 열려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발주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

〈 서해선안축 연계 노선도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구간에 대해 '15년 1월중 입찰공고 후, '15년 4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해 서해안권 교통수요를 분담함과 동시에 경부선축에 집중된 화물의 우회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철도망 사업으로 2018년까지 3조 8,280억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홍성에서 장항선과 연계돼 호남 · 전라선축과 연결됨은 물론, 화성에서 신안산선 및 원시 · 소사 · 대곡선과 연계되어 경의선과도 연결되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약 1시간 20분, 대곡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서해안권 철도망 연결로 경기도 서남부권, 충청권의 수도권 접근향상과 관광수요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진, 아산, 평택, 포승권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서해안 철도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해선(홍성~송산) 90.01km(복선전철)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 총사업비 : 3조 8,280억원